對 外 秘

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

2018. 6. 5. 기획조정실

1. ‘법원,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법’ 연구회 신설 필요

▣ 신설 필요성

- 현행 전문분야연구회 주제 중 상당수는 법관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 ⇨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필요

- 드라마, 영화 등 미디어에서 법원, 재판 및 법관이 왜곡되어 묘사되는 경우 많음 ⇨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므로,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을 미디어에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 필요

☑ 안정기 단계에 있는 선진국들은 사법질서 및 법관에 대한 고도의 신뢰 또는 사법정의의 승리를 주제로 하는 명작, 대작 수준의 드라마 및 영화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음

▶ 1 미국 영화 <일급살인(Murder in the first)> 1995년작, 교도소에서의 간접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(실화를 바탕으로 함)을 통해 미국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드라마틱하고 통쾌하게 보여주는 대작, 큰 흥행 및 평단의 극찬

▶ 2 미국 영화 <12인의 성난 사람들(12 angry men)> 1957년작, 명백한 유죄처럼 보이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사법절차 및 판단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드러냄, 고전 명작의 반열

▶ 3 일본 드라마 <져지 2~섬의 재판관 분투기> 2007년작, 대도시 오사카에서 근무하다가 섬으로 발령난 후 다양한 재판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법관으로서 보람을 찾는 내용의 NHK 드라마, 흥행 성공

▶ 4 일본 드라마 <리걸 하이> 2012년작, 변호사가 주인공이지만 변호사의 입 및 재판과정을 통해 사법의 본질, 사법정의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득력있는 정보 및 감동 전달, 흥행 대성공, 시즌 2 제작

▶ 특히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정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단순히 “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법원’의 수준을 넘어 가장 고귀한 가치인 정의를 정면으로 선언하는 내용의 영화 및 드라마가 다수이고, 대중의 지지도 얻고 있음 ⇨ 사법신뢰의 주요 원천

● 특정 분야 연구회가 인권의 보편성을 비롯한 광범위한 활동범위 및 인적 네트워크를 내세워 **법관 사회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**할 필요 ⇨ **대안으로서 법관 사회 이슈화될 수 있는 주제**의 연구회 필요

▣ **최근의 법원행정처 주요 추진 경과**

● 사법정책실, 2013년경 법원 소재 드라마 집중 추진

- 유명 제작사인 <김○○ 프로덕션>과 매우 구체적인 제작계획 및 시나리오가 확정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이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됨

● 사법정책실, 2016년 드라마 관련 조언

- tvN 드라마 '기억' ⇨ 현직 법관의 배우자인 배우 박○○가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판사 역할 담당

2. 설립 관련 기본 착안사항

▣ **연구분야의 특성상 설립 초반에 자리잡지 못할 경우 존재감이 희박한 연구회가 될 위험성 있음**

● 법관의 **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적극 활용**할 필요 있음

- 미디어에 비춰진 법원 및 법관의 모습에 관하여는 **법관들의 관심 매우 큼**

- 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**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**임

- 적절한 예산 및 인적 네트워크가 지원될 경우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, 예술인 또는 대중적 스타와의 간담회 등으로 높은 호응을 유발할 수 있는 **이벤트를 어렵지 않게 개최**할 수 있음

● (흥미 위주 요소 외에) **명분 공유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** 필요함

- 미디어 속 **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은 법관사회는 물론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**을 얻을 수 있음

- 대본 집필 관여 작업 등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자가 필수적임

- 이상의 **관심과 명분,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단기 성과 이벤트도 고려할 필요**가 있음
  - 주요 영화사·방송사·연예기획사 방문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를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시킬 필요성 있음

▣ **단, '흥미 위주 단기 이벤트성 모임'으로 변질되는 것은 피해야 함**

- 비판 우려
  -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'국풍 81', '3S 정책'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**설립의 배후 및 배경이 의심받을 위험** 있음
  - 컨텐츠의 지속적·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

▣ **전문분야 연구회로서의 본질 이탈 방지**

- 미디어 속 사법부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**법적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기초**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'엔터테인먼트법' 관련하여서는 이미 다양한 학술 논의가 있고, **외국의 이론 및 실무를 소개할 것도 많으므로**, 학술적 컨텐츠를 지속 공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

▣ ⇨ **결국 열의를 갖고 연구회 설립 및 활동을 주도할 인적 구성이 중요함**

3. 설립 준비 법관 관련 검토

▣ **부장판사급**

- 회장(고법부장급)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**지법부장급이 중요**함
- 종전에 검토된 문○○, 전○○, 오○○ 부장판사 등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후보군
  - 성악활동, 대외활동 등을 이유로 추가 추천된 일부 후보군 있으나 인지도 및 추진력 등의 면에서 적절치 아니함

● ⇨ ① 전국적 인지도, ② 젊은 법관 선호도, ③ **미디어 등 주제 관련 열의(2011년 후배 법관들을 데리고 연예기획사 방문경력 등)**, ④ 업무 추진력, ⑤ **성과도출 가능성(기존 미디어와의 네트워크 포함)**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문○○ 부장판사 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

☑ 문○○ 부장 관련 추가 우려사항 검토

▶ 1 행정처의 통제를 벗어날 우려 ⇨ 단기적으로 가능성 낮으므로 문제되지 아니함

- 법관 사회 화제성 선점, 법원 관련 우호적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 지원 등 행정처가 희망하는 단기적인 연구회 설립 및 활동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문 부장이 위 목적을 벗어난 결과를 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
- 사법행정권 입장에서 희망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내지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사안과는 구별됨
- 문 부장판사가 '행정처가 원하는 정답대로만'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, 최근 문부장의 성향(자신의 출판, 집필, 익명카페 활동 등에 대한 대법원 및 행정처의 평가에 관심이 상당함)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와 전면 대립할 가능성도 낮은 편임

▶ 2 연구회에 대한 행정처의 '지원 내지 설립 권유'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과시할 우려 ⇨ 가능성은 있으나, 크게 오해되거나 문제될 사항은 아님

- 미디어 연구회가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띤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움
- 사법정책실 및 홍보심의관실 등에서 지속 추진해온 아이템임 ⇨ 문부장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
- 특히 최근 정○○ 사태로 국민의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, 설령 행정처가 법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문분야연구회 설립을 권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될 뿐 특정 연구회측으로부터 오해를 살 가능성은 희박함
- 문○○ 부장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정처에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사실은 어차피 비밀로 유지하기 어려운 내용임 ⇨ 앞에서 본 명분 및 법관들의 관심도를 전면에 내세워 정면 돌파하여도 문제될 가능성 높지 않음

▶ 종합 검토의견

- 문○○ 부장 관련 우려되는 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고, 신설 연구회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됨

▣ 권유 방안

● 기획조정실이 전면에 나설 경우 **政務的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오해될 소지**가 있으므로,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법정책실 및 홍보심의관실에서 우선 권유

- 국민에게 **사법부(법관)의 참모습을 알린다는 명분**, 본인의 **전문성과 명성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**할 수 있다는 점, 본인의 작가로서의 위상과 염결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**설득가능할 것으로 예상**됨

- 문○○ 부장은 최근에도 유사한 활동을 스스로 한 적이 있음

> ☑ '미스 함무라비' 연재
>
> ▶ 열혈 초임 여성 판사를 주인공으로 한 본격 법정 소설
>
> ▶ 한겨레에 2015. 5.부터 2016. 3.까지 10개월간 18회에 걸쳐 연재
>
> ▶ 독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법관 사회 내밀한 모습을 다소 과장되게 묘사하였다는 문제점도 있으나, 기본적으로는 법관사회의 고민과 재판절차 및 결과의 보편타당성을 드러내고자 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

● 그 후 문부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박○○, 조○○ 심의관 등이 추가로 권유 및 응원 의사를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

▣ 평판사급 추진 법관 후보군 관련

● 아래 예시 외에도 재능과 관심, 열의를 가진 법관들 다수임

- 김○○ 판사(○○기, ○○지원) ⇨ 연극배우 경력, 2006년 제23회 강원연극제 최우수연기상, 언론보도 다수

- 김○○ 판사(○○기, ○○지법) ⇨ 연극배우 경력, 연수원 입소 미루고 연극무대, 여성잡지 등 보도

- 윤○○ 판사(○○기, ○○지법) ⇨ 대형 상업영화 제작 감독인 윤○○ 감독의 누나로서 법원 관련 시나리오 작성 등에도 관심

● 단, 추가 구성원 포섭과정은 **원칙적으로 문○○ 부장의 자율**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⇨ **문부장의 책임감, 몰입도 강화로 긍정적 효과 예상**

- 문○○ 부장이 위와 같은 젊은 법관 후보군들과 어차피 자체적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

- 설립 추진 세력의 인적 구성까지 행정처가 관여하려 할 경우 문○○ 부장이 반발하거나 연구회에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함

▣ 법원공무원 참여 방안

-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회 **회장은 법원공무원을 준회원으로 가입**시킬 수 있음
- 홍보 컨텐츠 개발 등을 위해 **전문성 및 재능이 있는 공무원도 참여시킬 필요** 있음 ⇨ 최근 **법관과 법원공무원간 심리적 거리감 확대로 인한 이원화 조직의 문제점 완화 방안**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
- 문○○ 부장 등의 성향상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

4. 기존 설립 경과에 비춰 본 예상 일정

▣ 일정을 제시하거나 적극 권유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함

- 전문분야 연구회로서의 특징 및 **시기적으로 급박한 아이템은 아닌 점** 등을 고려할 필요
- 미디어 연구회 신설 추진 법관들에게도 **일정을 제시하거나 강권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되, 행정처가 적절히 조력**함이 타당
- 행정처로서는 연구회 설립의 원만하고 신속한 허가, 종전 다른 연구회 설립 지원 경험 등을 설명하여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

▣ 기존 설립 관련 일정 등 참고사항

- 2000년 전문분야연구회 최초 도입(당시 11개 연구회 설립) 이후에 추가로 설립된 연구회

- 2006년 헌법연구회, 2007년 젠더법 연구회, 2010년 형사법연구회

☑ 1 국제인권법 연구회 신설 경과

▶ 2011. 6. 30. 기획1심의관 메일로 설립 허가 요청 제출

- 당시 법관 33명이 가입 희망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다면서 신청
- 중복가입 인원을 제외하면 설립 요건인 30명에 미달되었으나, 발기인들의 반발로 '설립허가 적정성 先 회신 후 설립 인원 요건 등 구비 여부 정식 검토'하는 방안 채택

▶ 2011. 8. 설립허가 및 개설 공지, 커뮤니티 구축

☑ 2 젠더법 연구회 신설 ⇨ 기존 여성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라는 특징으로 인해 사전 설립 준비 작업이 특별히 필요하지 아니하였음

▶ 2007. 12. 31. 행정처장의 설립허가 - 회원 93명

▶ 2008. 1. 11. 여성법커뮤니티 임원회의

▶ 2008. 1. 15. 코트넷에 설립허가 및 개설 공지, 커뮤니티 구축

- 자체적으로 30명의 가입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하면 즉시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이 상당 ⇨ 연구분야 및 추진세력의 흡입력에 비추어 30인 요건 구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임

- 문○○ 부장판사가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위원이나, 이미 1차 회의는 종료되었고, 9월 임시회의까지는 상당한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, 그 전에 추진하는 데 무리 없음

- 9월 이전에 설립 완료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 있음

▣ 로드맵(예시)

시기	시행 방안	주무 부서
6월 초	사법정책실 등 연구회 연관 부서에서 문○○ 부장판사에 설립 권유 (소극적 반응일 경우 친분 관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설득)	정책실 (기조실 및 공보관실 측면 지원)
6월 중순 이후	◆ **문○○ 부장 : 30인 요건 구비 위한 구성원 포섭** ◆ **업무지원 부서 : 설립 직후 시행할 아이템 사전 검토 및 준비** -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, 예술인 또는 대중적 스타와의 간담회, 주요 영화사·방송사·연예기획사 방문 등 **다소 자극적이더라도 단기적 임팩트 있는 아이템** 준비 필요	
7월 중순경	설립 허가 신청	
7월 하순경	설립허가 및 개설 코트넷 공지	
8월	설립 직후 홍보 및 이목 집중 아이템 시행	
9월 이후	드라마 등 중기 과제 관련 활동 착수 엔터테인먼트 분야 학술 활동 착수	